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문선명 총재(왼쪽 세 번째) 부부가 6일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시베리아를 잇는 베링해협 '평화의 왕 다리 또는 터널' 건설 예정지인 알래스카 웨일스시 등을 둘러본 뒤 한국·일본·미국·러시아 대표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제공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문선명 총재 ‘평화의 왕 다리’ 예정지 답사

건설기금 2000억弗 마련·기본설계 지시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공사비만 약 2000억달러(200조원)가 투입될 인류 최대 역사인 ‘평화의 왕 다리 또는 터널’ 건설 예정지인 미국 알래스카 동서부 끝인 웨일스를 6일 방문했다.

문 총재는 지난달 26~29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미국 4대도시 순회강연 중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시베리아를 동서로 갈라놓은 베링해협 85km(51마일)를 교각 또는 터널로 연결, 인종·문화·종교·국가의 벽을 허물

어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평화의 왕 다리 또는 터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이날 현장방문을 한 것이다. 이날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IIFWP 6개 대륙 대표들과 함께 알래스카 코디액섬에서 965km(600마일) 떨어진 웨일스를 둘러본 문 총재는 “이곳은 한민족의 뿌리인 몽골족이 베링해협을 지나 북미를 거쳐 남미로 이동했음을 증명하는 곳”이라며 “이 해협을 이어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국제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증진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 총재

는 현장을 답사한 뒤 곧바로 ‘세계평화왕관창간연합’을 결성해 기금 마련과 함께 기본 설계작업도 지시했다. 베링해협이 연결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해 미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과 화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재는 1980년대 초에도 대한해협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한일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 현재 일본 사가(佐賀)현 가라쓰(唐津)에서 한국의 경남 거제도를 잇는 터널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世界日報 2005年7月7日 (総合)

全人類を一家族に

文鮮明総裁「ワールドピースキングブリッジ・トンネル」予定地を踏査
建設基金2千億ドルの準備と基本設計を指示

世界平和超宗教超国家連合（I I F W P）創始者の文鮮明総裁が、工事費だけでも約2千億ドル（200兆ウォン）が投入される人類史最大の事業である「ワールドピースキングブリッジ・トンネル」の建設予定地アメリカのアラスカ西端ウェールズを6日、訪問した。

文総裁は先月26日から29日にかけて「今は神の時間」という主題でアメリカ4大都市を巡回講演中、アメリカのアラスカとロシアのシベリアを東西で隔ててきたベーリング海峡（85Km、51マイル）を、橋あるいはトンネルで結び、人種・文化・宗教・国家の壁を崩し、世界平和を築くための「ワールドピースキングブリッジ・トンネル」事業を進める意志を明らかにし、同日現場を訪問したものだ。この日、韓国、日本、アメリカ、ロシアなどI I F W P 6大陸代表らと共にアラスカのコディヤック島から965Km（600マイル）離れたウェールズを訪れた文総裁は、「ここは韓民族の根っこであるモンゴル族がベーリング海峡を経て北米から南米に移動したことを証明する場所」とし、「この海峡をつなぐ人類を一つの家族に結び、国際社会の安全と和合を増進させる」と重ねて約束した。文総裁は現場を探查した後すぐに「世界平和王権創建連合」を結成し、資金準備と共に基本設計作業も指示した。ベーリング海峡が結ばれば南アフリカの共和国のケープタウンからチリのサンディエゴまで、そして英国のロンドンからアメリカのニューヨークまで陸路での移動が可能となり、アメリカとロシアの友好関係はもちろんのこと、国際社会の安定と和合にも大きく貢献するものと見られる。

文総裁は1980年代初めにも対馬海峡（大韓海峡）を地下トンネルで結ぶ日韓国際平和高速道路建設計画を発表、現在日本の佐賀県唐津から韓国の慶尚南道の巨済島を結ぶトンネル工事を進めている。

◇（写真説明）世界平和超宗教超国家連合（I I F W P）の文鮮明総裁（左側より3人目）夫婦が6日、アメリカのアラスカとロシアのシベリアを結ぶベーリング海峡の「ワールドピースキングブリッジ・トンネル」の建設予定地であるアラスカのウェールズ市などを訪れ、韓国、日本、アメリカ、ロシアの代表らと共に記念撮影をしている。 世界平和超宗教超国家連合提供